

세계화와 종족화

-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20세기가 끝나가는 현재,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주요한 지적 논쟁은 한편으로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흐름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의 국가 주체성에 대한 집착 사이의 갈등관계에 전반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이 갈등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이 시대의 중심적인 특성으로 보여진다. 나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물리칠 것이라는 식의 예언을 감히 시도하지는 않겠다.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고자 하여도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정확히 예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류는 20세기에 건설한 현재보다 영광스런 미래를 쫓는데 치중하였던 예언적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정말로, 머나먼 미래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가장 최악의 범죄들이 자행되었다. 우리가 진정 평화, 행복 그리고 번영을 원한다면,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종합적 시도 (Mondiology)

논의에서 무엇보다 개념적 도구와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채택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장치는 현재를 관찰할 수 있는 거울에 비유될 수 있다. 이 거울을 먼디알리지(Mondiology)라고 칭한다. 이것이 하나의 학문분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의 각 영역은 너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 학문 상호간의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미학 그리고 문학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은 없었다. 내가 먼디알리지로

부르기로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종합을 가능케 해 줄 시도이다. 이같은 시도는 확실히 과거에도 있었다. 예를 들면, 60년대에는 미래학자 허만 칸(Herman Kahn)의 연구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의 예측 실패는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현재를 외면한 채 미래로 무모한 접근을 시도한 데 있었다. 우리는 먼디알리지를 통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갈등들을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적 인식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갈등들은—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 동양과 서양—세계화 추세와 뿌리로 되돌아 가거나 뿌리를 재발견하려는 추세간의 갈등만큼 중요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 둘간의 구분은 중요하다 즉, 뿌리로 되돌아가는 문제와는 달리, 뿌리를 재발견하는 작업은 근대성이 훼손시킨 전통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재구축하는 것이다. 저자의 생각으로는 세계화와 국가 주체성간의 대립관계는 이 시대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물질적 세계화에서 정신적 세계화로의 이동

처음부터 나는 몇 가지 개념들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우선 세계화부터 시작해보자. 세계화는 세계 모든 언어속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말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은 경제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세계의 모든 경제단위들은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상태에 있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국제적 맥락을 떠나서는 영위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지역 서비스, 도소매, 예술, 공예 등과 같이 이같은 추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제활동 분야도 일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절대적인 변화 추세이다. 조만간 세계의 그 어떤 지역이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의 경제적 활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경제적 의미 이외에도 세계화는 빠른 정보 교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디오와 TV의 출현 이후, 컴퓨터로 처리된 정보 교환과 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차원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경제 및 정보차원에서만 개념정의를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문화적 차원과 문명의 개방에도 주목해야 한다. 단순한 상품과 정보 이상의 것이 순환되고 있다. 경제와 정보 고속도로는 개개인들에게 문명, 문화 그리고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생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화는 경제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 흐름을 통제하며, 또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세계화에 관해 아주 새로운 것이 있는가? 과거에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세계화를 예견하는 듯한 사건들은 많았다. 인류역사가 보여주듯이 종족화(tribalization)의 유희처럼 세계화에 대한 충동도 인간 본성의 내재적인 일부분이다. 아득한 고대부터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과 지역적 정착, 외부세계 발견의 충동과 내부적 정착의 필요성, 교역과 전쟁, 교환경제와 자립경제 사이의 갈등 등은 모든 개개인과 문명내부에 병존해 왔다. 인류의 전체 역사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두 가지 상반된 유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경향이 우세했던 역사상의 특정 시기로의 분석을 한정시키고자 한다. 훌륭한 사례로 알렉산더 대왕을 들 수 있겠다. 그는 2천 4백년전 그리스를 출발하여 페르시아와 인도 같은 동방으로 모험에 나섰다. 그의 영웅적 여정은 단순한 군사적 활동이 아니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시대와 최근세사에 이르기까지 관습과도 같았던 제국 건설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가 인더스 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했던 수하 장수들에게 선언했듯이, 그의 야망은 모든 국경을 없애고 전인류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대왕은 자신과 맞서 싸웠던 왕들의 딸과 결혼을 하고, 적대국 군대에서 장교를 선발하였으며, 더 나아가 적들의 종교적 전통까지도 받아들이는 등 인류통합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은 위대한 보편적 종합(universal synthesis)이었다. 그러나, 대왕의 마케도니아 장군들은 이러한 모험정신에 반대했다. 그들은 제국 확장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야망을 억제하고, 또 원정을 통해 축적한 부를 향유하기를 더 원하였다. 종족중심적인 장군들의 세력이 알렉산더보다 강했기 때문에 종족중심적 정신이 세계화의 욕구를 압도하였다. 사실,

역사의 각 시대마다 종족중심적 유혹과 세계화는 충돌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세계화는 늘 패배해 왔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간직할 필요는 없다는 치더라도, 과거의 이같은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을 것이다.

여기서 잠시 알렉산더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기로 하자. 알렉산더 대왕의 여정은 그 당시에는 실패하였지만, 곧이어 성과가 뒤따랐다. 세계화의 꿈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후 몇 세기에 걸쳐 그리스인들이 인도에 정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승려들이 그들의 지식과 종교를 서구세계에 전파시키기도 하였다. 비록 세계화를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화간의 접목을 야기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여정과 비슷한 또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무력을 통한 세계화가 직접적으로 정신적 세계화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도의 아소카 왕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진정한 통합은 인간 정신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소카 왕은 중국에 이르는 극동지방에 불교선교단을 파견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이르는 서방지역에도 불교를 전파시켰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강력했던 아소카 왕의 꿈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의 전조같은 것이었다. 즉, 물질주의적 세계화는 자연스럽게 정신주의로 연결되었다. 경제적 경로가 통합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문화적 매개만이 완전한 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

세계화를 기반으로 삼아 정신적 통합을 이루려는 욕망은 현대의 신학과 이데올로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산주의 초기에 마르크스나 그 후의 레닌이 모든 사회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세계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마르크스의 지속적인 야망은 세계를 변혁시켜 공산주의를 보편화시키는 것이다. 레닌 역시 초기 저작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한 국가 이상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목표는 결국 19세기의 사이비 과학적 실증주의와 더 중요하게는, 기독교적 목표의 은유적인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종종 발견되곤 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세계설계(world design)는 기독교의 그것처럼 야심에 찬 것이었고, 기독교적 목표의 변형 내지 비교 대상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신학자 Teilhard de Chardin은 분명하게

이런 목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고고학자로서도 유명한 그는 50년대에 통신과 정보라는 새로운 수단에 힘입어 정신을 통한 세계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모든 인류는 정신적 상호의사 교류를 통해 보편적인 영적우주를—그는 이를 인지권(人智圈) 또는 사고의 영역이라 불렀다—만들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그 사고의 영역이 기독교적이길 진정으로 바랬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는 않았다. 정보 고속도로와 인터넷은 de Chardin의 예언적 상상을 어느 정도 증명해 주고 있다. 여러 문명과 문화의 통합을 위해 통신과 교류라는 수단을 인류의 수중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아직 더 지켜 볼 일이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 앞서 밝힌 것처럼 세계화의 경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종족주의적 경향과 국가 주체성(national identity)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3. 국가 패러다임

국가 주체성이란 국가, 문화, 언어 등이 일치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사실, 국가 주체성과 국가는 인류역사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난 지적, 정치적인 산물이다. 과거 인류사회는 공동체, 씨족, 부족, 군주국, 왕국 혹은 제국 등의 순서로 조직화 되었다. 국가는 연속적인 조직화 형태의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자연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는 것은 역사에 한정한 방향과 사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표에 더욱 가깝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가가 지배적인 사회조직의 형태라는 사실이 국가가 반드시 이전의 사회조직 형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회조직의 형태라는 점이 그것이 다른 사회조직 형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개념은 18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이는 순전히 프랑스적 사고이며, 또 우연히도 영국적인 사고(idea)이기도 하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만 하다. 국가는 진화 과정상의 자연적인 산물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의지의 고

안물이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욕구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국가는 의식적인 사상의 산물, 즉, 시인과 소설가들이 군대 지휘관이나 정치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지적 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자연스런 과정보다는 일련의 혁명과 전쟁을 겪은 후에야 형성될 수 있었다. 18세기 프랑스 경우를 보면, 이 국가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웠던가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혁명 물결이 구 왕정의 신성한 정당성을 거의 모두 무너뜨렸을 때, 혁명 진영은 스스로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자문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구 왕정의 충절들을—지역적, 종교적, 봉건적—부정하고 그것들을 시민의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시민의식이란 철학적 발명품이다. 시민은 개체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가라는 더 큰 실체에 융화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이 같은 철학체계에서 국가는 함께 모여있는 개인들의 집단적 열망을 더 높은 차원에서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것이 바로 장 자크 루소가 ‘일반의지’ (general will)라고 말한 것이다. 일반의지는 개인적 열망들의 단순합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지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하고, 개인의지보다 우월한 것이다. 이러한 루소의 철학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현대 전체주의의 선조였다. 실제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무스타파 케말, 네루, 링컨, 그리고 메이지 천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국가의 건설자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을 재빨리 파악했다. 이 파괴 과정은 종종 폭력적이었다. 국가 차원의 시민을 창조하기 위해 지역에 고착된 개인들에게 폭력이 행사되었다. 때로는 물리적 폭력도 행사되었으며, 문화적 폭력도 동원되었다. 국가의 통일은 또한 공통된 언어를 위해 각 지방 언어를 억압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를 작품 주제로 하여 창작활동을 하였던 작가와 예술가들의 순응적인 태도와 더불어 자신들의 통일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된 신화를 이용하는 정치가들을 19세기에 이어 20세기에 보아 왔다.

국가를 건설하는 어려움의 정도는 지리적인 것과 문명적인 것의 두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국가는 대영제국, 한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

이 문화적이거나 언어적인 단위들에 적합하다. 중국, 인도, 아랍 지역, 그리고 사하라 지역의 아프리카 등과 같이 언어나 문화가 분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국가의 성립이 쉽지 않다. 오늘날의 국가는 어느 정도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경제적 단위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국제 질서가 1920년의 국제 연맹과 1945년의 국제 연합에 토대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은 국가라는 이름하에서였다. 사실상 국제연합의 헌장은 국가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정치 단위체로서 신성시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제도적 조직들이—씨족, 군주국, 제국—사멸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씨족, 군주국, 그리고 제국들에게—소비에트 연합, 오토만 제국, 오스트로헝가리 제국—쪼개어져 개별국가가 되라는 형을 내렸다.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상황에 좌우되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랍 지역, 아프리카(콩고, 르완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몇몇 분쟁들을 살펴보면 국가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따라서 미래에는 사람들의 문화적, 언어적 지형학에 더욱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 출현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배적인 합의 내용은 국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사회조직의 형태라는 점이다. 이것이 현재의 주된 패러다임이다. 즉, 국제무대에서 주권 선수들이 잠재의식적으로 내면화시킨 원칙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패러다임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패러다임은 역사의 산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국가 주체성

국가와 국가 주체성은 일치하는가? 이 둘의 관계는 나라마다 상이한데, 어쨌든 국가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때 그 문화 속에서 국가는 사전적으로 유동적인 형태를 갖는다. 국기, 국가(國歌), 군복무, 선동, 정치적 논쟁 등은 국가를 궁극적인 논거로 삼아서 국가 문화를 창조하였다. 비록 그 전에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씨족이나 부족에 대한 충성으로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있더라도 더 우월한 정당성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이름하에 즉시 좌절되었다. 그 결과 국가는 국민들을 강하게 만들어 그들을 번영, 자유, 그리고 문화적 창조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정신적 창조성을 크게 억압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주체성을 파괴하고 국가 주체성을 구축하는 작업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개인들은 첫째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국가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전통적 충성의 대상보다 국가를 우선시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문화지리학에 의한 증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추세와 국가로 머물려는 추세의 특성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개념에서 세계화와 국민적 재발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다 동적인 형태로 살펴보기로 하자.

5. 세계화 또는 미국화

첫째, 세계화에 관한 것이다. 나의 다음 가정은 급진적이어서 반대에 부딪힐 여지가 있다. 세계화는 미국화로 불려져야 마땅하다. 세계화라는 용어가 지닌 뜻 그대로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이 세계는 모든 국민 문화들의 종합체가 되었을 것이다. 개별 민족은 각자 나름대로 일정한 공헌을 하였을 것이고, 개별 종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별 언어도 세계 공용어의 형성에 각각 일정한 요소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세계화라는 가면 속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모델만이 진정한 의미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즉 정치적 모델은 민주주의지만 이것은 ‘특정한’ 민주주의이고, 경제적 모델도 자유시장 경제이지만 이것 역시 ‘특정한’ 자유시장 경제이다. 그러나, 미국적 스타일의 세계화가 제국주의적 계획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다. 미국 국기 아래로 세계 통일을 추구하는 숨겨진 중심세력은 미국 내부에는 없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및 군사적 힘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자발적인 반응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산발적이지만 세계적으로 일관성있게 전파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또다른 지역주의(provincialism)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이 미국적 스타일의 시장 경제를 이상화하는 것은 곧 다른 형태의 시장 경제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지도자들처럼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 헌법을 완전무결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과 다른 헌법은 전부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이들의 정치적 행태는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 뿐이다.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의 미국적 모델은 미국의 역사적 경험이 지닌 특수한 본질과 미국을 건설한 이민자 및 개척자들의 문명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가를 이상화하고 공동체적 연대감보다 개인을 더욱 우선시하는 것은 모든 개별적 시장 경제가 아니라 미국 문명 속에만 내재된 특성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기본 요소로 하는 자유주의 철학 하에서는 국가들이 지닌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민주주의나 시장이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파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가 어떤 특정한 것, 즉 미국화 이상의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는 이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미국적 스타일의 세계화가 정치적, 외교적 및 경제적 양상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이 의식적이건 아니건 나머지 세계를 향해 문화적 기준은 물론 정신적 기준마저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이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가 지닌 심오한 종교적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신에 의해 선택되어졌다고 믿는다. 신성함과 미국인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에 대한 지속적인 암시는 다른 언어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다시 태어나기(Born again)’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 미국인들의 이 같은 종교적 경험은 세속적인 개인주의 이상의 것을 낳는다. 그것은 바로 자아(self)의 신성화이다. 미국은 비록 스스로를 유대-기독교(Judeo-Christian)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보기에 미국 사회가 새로운 종교 혹은 아마도 각 개인들이 스스로를 신성(the divine)의 일부이거나 또는 신성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이교 신앙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정신상태를 신학에서는 신비적 직

관(gnosis) 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오늘날의 미국에서 신비적 직관은 아마도 유대-기독교라기보다는 발생 단계에 있는 새로운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아소카 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신흥 종교를 교묘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된다. 미국은 사실상 세계의 많은 지역 특히 남미는 물론 러시아와 아시아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전도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미국 종교의 이와 같은 부흥 행위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의 민족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전도사들의 설교만이 새로운 미국적 신조가 유포되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 영상, 영화, 음악 등은 이런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미국이 지닌 가장 강력한 문화적 침투 수단은 인터넷이 아닌 음악인 것 같다.

젊은이들을 위한 테크노 음악을 구체적 예로 들어 보자. 테크노 음악의 영향력은 사운드나 리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테크노 음악은 개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와 관련된 하나의 예가 비록 사소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매우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사람들은 테크노 음악에 맞추어 혼자서 춤춘다. 고전적인 유럽 문명 하에서는 춤을 추기 위해서 반드시 커플을 구성해야 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미국 음악에 맞추어 홀로 춤을 춤으로써 커플은 해체되고 개인적 자기도취가 찬양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세계의 미국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중심적 세계 대 지하드」(*Macworld versus Jihad*)의 저자인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 교수와 같은 시기에 미국중심적 세계라는 용어가 이와 같은 미국적 모델의 수출 현상을 지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약성어(acronym)는 맥도날드(McDonald)라는 물질적 차원에 맥킨토시(MacIntosh)라는 기술적 및 문화적 차원을 더한 미국적 모델을 완벽하게 표현해 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 국가, 그리고 국가 주체성은 세계화보다도 오히려 미국중심적 세계화(MacGlobalization)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6. 미국중심적 세계의 위협

미국중심적 세계화(MacGlobalization) 경향은 복합적이다. 또 미국중심적 세계화의 일부 양상은 긍정적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평화공존,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한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달성할 수 없었던 많은 국가들에게 진보를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불과 얼마전을 생각해 보자. 미국중심적 세계제국 하에서의 세계화는 소비에트 제국 하에서의 세계화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화가 외견상 미국중심적 세계의 모습을 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미국적 제국(American Empire) 하에서의 세계화가 미국인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지 생각해 보자. 어떤 제국에게 아무런 라이벌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모든 증오가 그 제국에게로 집중되기 쉽다. 이것은 그 제국을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중심적 세계의 독점력은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같은 미국중심적 세계의 가장 긍정적인 면모들을 거부하도록 만들 수 있다. 단극(單極) 세계에서는 미국 사회가 지닌 가장 우월한 특성들이 단지 미국 사회의 구성 인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에 총체적으로 거부되어 버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해야 할 목표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극 세계보다는 다극 세계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단 하나의 제국이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사고를 강요할 때는 그 제국의 리더십이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다른 의사결정의 중심, 분석, 시도들이 등장하고 또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에도 이익이 된다. 통일성(unity)은 다른 대안들을 허용하지 않지만, 경쟁은 이와 같은 대안들의 존재를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극 세계가 단극 세계를 대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

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대안들을 모색함과 동시에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중심을 건설해야 한다. 다른 중심이 존재할 경우 정치 및 경제는 물론 문화와 종교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미국의 경험보다도 인류를 위해 오히려 더욱 생산적인 것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다른 모델이 미국적 모델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인류가 자유시장 모델보다 더 나은 경제 모델을 고안해 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역시 없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모두 인간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단지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들이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반드시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은 활동적이어서 사고를 멈출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토피아가 출현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유토피아는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창조적일 수도 있다. 아울러 우리는 경험 역시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모두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은 풍부한 지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다.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던지 간에 결국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예견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시대(global era)에서 역사의 시계가 멈추어 버릴 것을 암시하는 것은 결코 없다. 아마도 이같은 멈춤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7. 국가의 미래

만약 세계화가 이 시대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라는 점과 그것이 미국중심적 세계와 동의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미국중심적 세계가 역사의 종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아울러 우리가 미국중심적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대안적 시도들을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 기본 틀이 되겠는가? 그 대안적 시도들은 어떠한 틀 안에서 행해질까? 국가가 그 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국가는 얼마나 건실한가? 국가의 출현과 확산을 목격한 이후,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라는 제도적 형태가 다른 것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국가의 해체는 혼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국가가 아래로부터 분열되는 몇몇 경우를 목격하고 있다. 아프리카 및 중동은 물론, 벨기에(언어적 분리)와 이탈리아(지역적 분리)의 경우 같은 서유럽에서조차도 주(province), 부족 또는 씨족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개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욕구를 더 이상 충족시켜 줄 수가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국가보다 더 작은 규모의 지리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단위에 소속된 자신들을 발견한다. 보통 이와 같은 분할(balkanization)은 국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전통 사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주 가정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가장 좋은 예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경우이다. 식민지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정치적 국경은 어떠한 형태의 주체성에 부합되어 획정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더욱 혼란스러운 것이다. 벨기에에서는 사회가 언어적 경계선을 따라 쪼개지고 있으며, 통일 이후 100 여년이 지난 이탈리아에서는 남부와 북부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분리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근대 사회에서조차도 고도의 문화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동질성을 지닌 도시지역들이 국가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유고슬라비아의 사례는 좋은 예이다.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의 탄생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종교적 및 인종적 충성심이 중앙정부의 정통성을 능가해 버렸다. 북아일랜드의 끝없는 분쟁은 국가에 의한 번영과 민주주의가 반드시 종교나, 혹은 인종적 본질에 대한 충성심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똑같은 일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구소련의 남부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공화국들의 지속적인 분리독립 현상은 이들 스스로가 하나의 국가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한다.

그러므로, 세계는 국가가 안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과 불안정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갈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벨기에 및 영국의 사례는 안정적 지역과 불안정한 지역 사이의 경계가 참으로 미약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분

열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탈리아 및 벨기에의 사례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경제적 이유를 지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주체성은 모호한 용어이다. 주체성은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인종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종종 주체성이라는 개념은 정치 지도자나 지식인들에 의해 부과되는 인위적인 구조물이다. 이런 경우, 종교와 허위의 인종적 또는 언어적 소속감이 권력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고안된 주체성을 사후적으로 합법화시켜 버린다. 19세기의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었다. 권력으로부터의 동일한 형태의 강요가 국가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 국가는 아래로부터 전복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EU, NAFTA, 그리고 남미의 MERCOSUR와 같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거대한 지역적 블록이 형성됨으로써 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적, 외교적 블록인 ASEAN이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정치적 의지와 어느 정도의 문화적 동질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제적 단위들은 유지될 수가 없다. 유럽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유럽연합(EU)은 견고한 경제적 연대의 창출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나, 이렇게 출발한 지 50년이 지나면서 견고한 경제적 연대라는 것도 정치적 의지는 물론 더욱 중요하게는 유럽이라는 공통된 문명에 대한 소속감에 의해 지지될 때에만 유지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8. 문명간의 갈등

북미의 경우 어떻게 자유 동맹이 정치 동맹이나 공통된 문명에 대한 소속감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멕시코를 나뉘어 놓고 있는 문화적 장벽은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뛰어난 저자들은—특히 사무엘 헌팅톤(Samuel Huntington)을 언급하고자 한다—거대한 문명 블록이 개별 국가들을 압도해 왔다는 사실을 아주

즐거 얘기하곤 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문명이 무엇인지 혹은 문명의 외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예측은 문명들이 필연적으로 상호 충돌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예측은 현존하는 분쟁들에 대한 사실적인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므로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폭력적인 분쟁들은 문명간 분쟁이 아니라 문명내부의 분쟁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은 국가들-동일한 문명에 속한-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우리는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반면, 그것이 새로운 문명간의 충돌로 바뀌는 시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하며,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비추어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쿠웨이트, 유고슬라비아, 북아일랜드,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중국과 베트남 및 대만 간의 국경 분쟁, 혹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 분쟁 등과 같이 문화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의 충돌은 언제나 가장 폭력적이었다. 인류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 경험적인 사실은 증오가 우정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극단적인 증오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나치의 급진적인 반 유대인 성향은 유대 민족 간의 유사성이 가장 컸던 독일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형제를 학살하는데 기꺼이 나섰던 것이다. 장래에 이와 같은 인류학의 법칙이 변화해서 유명한 문명간의 충돌로 귀결될 것이라는 암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문명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헌팅턴이 서구 문명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을 때 미국과 유럽 사이가 괴리될-경험적으로는 관찰될 수 있지만-가능성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내 생각에는 진짜 단극화된 서구 문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 대신 개별 국가 혹은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룹들에 기초한 다극적인 서구 문명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 헌팅턴은 아프리카 문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아프리카는 외부에서 본다면 동질적인 문화적 단

일체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해당 민족별로 내부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견해는 180도로 달라진다. 이 사실은 소위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슬람은 문명이 아니라 종교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슬람 교도들은 이론적이고 일반화된 이슬람종교보다 그들의 직접적인 문화 공동체나 소속 국가에 대해서 더욱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다. 이슬람적 유대감은 이슬람 교도들이 상이한 문화들에 속해 있을 때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들을 살펴보면 이슬람의 문화적 충성심은 종교적 충성심보다 더 강했다. 이 점은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 혹은 이슬람 국가와 인접 국가들간에 발생한 폭력적 충돌들에 의해서 확고히 증명되어 왔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유고의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적인 세르비아계나 크로아티아계에 의해서 투르크족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이들 이슬람 교도들이 오트만 제국을 어느 정도 계승한 면이 있고, 또 그들이 과거에 오트만 제국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고의 이슬람 교도들과 전혀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지 못한 투르크족은 전혀 그들을 돕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와 체첸 간의 분쟁이 발발하자, 투르크족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면서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체첸을 돕기 위해 달려갔다. 이러한 사실은 문명이라는 개념이 사고의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을 관찰할 때는 그리 유용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의 일부일 뿐이다.

9. 한국의 사례

결국 개념으로서의 문명은 우리 세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극히 단순화된 개념처럼 여겨진다. 한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다. 한국은 국가인가, 아니면 문화 혹은 문명인가? 헌팅턴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의 유교 문명이라는 더 큰 문명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문화적 현실을 상당히 빈곤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렇지만 한국 문화는 전적으로 중국적이거나 혹은 유교적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 세계에서

의 한국의 상대적인 취약성은 아직도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국가의 개념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 관한 한 나는 문명이 국가의 개념을 대체하는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개의 한국이 재통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성은 현재 미완의 것이다.

한국의 사례는 세계화와 국가 주체성, 즉 한국적인 것간의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역시 흥미롭다. 상당수의 한국인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이데올로기 문제에 관한 한, 자신들을 반미주의자로 정의하는 한 양자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인식되고 있는 세계화는 명백하게 미국적인 냄새를 풍긴다. 이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국가 주체성과 미국중심적 세계(MacWorld)가 서로 충돌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중심적 세계가 한국을 휩쓸어 버릴 수도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국가 주체성과 미국중심적 세계가 공존하는 것이다. 나는 이와같은 세 개의 시나리오 모두가 가능하며, 아마도 이 세 가지가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최선의 선택은 미국중심적 세계와 한국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미국중심적 세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 문화란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화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실 생활속에 살아 있는 한국 문화와 박물관에 전시된 죽은 한국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개념으로서의 문화는 매력적인 만큼 모호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추앙하는 한국 문화는 일종의 경직된 박물관 문화, 즉 과거의 표역이라 하겠다. 여기서 문화를 민속과 혼동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현 시대의 작가들이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문화는 죽어서 방부처리될 수도 있고, 또한 살아있을 수도 있다. 내게 있어서 북한 문화는 죽어서 방부처리된 것인 반면 남한 문화는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한 문화의 생명력은 미국중심적 세계와의 충돌에서 생성된다. 내가 보기에 한

국 문화에의 기여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창조적인 예술가들—나는 지금 백남준을 떠올리고 있다—은 그들의 국가 주체성이 북미 문화와 충돌 상태에 있거나 혹은 그것과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미국중심적 세계와의 공존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굳건하게 반미국적인 사람들은 오직 과거만을 바라보면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박물관 문화를 옹호하고 있다.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순수한 언어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미 죽은 언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한편, 신조어는 과거부터 언어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해 정적인 정의가 아니라 동적인 정의를 내릴 때, 미국중심적 세계와 한국 문화의 공존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에 대한 정적인 정의를 고수할 경우 다른 문화가 한국 문화를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0. 문화 주체성을 보전하는 방법

동적인 문화와 미국중심적 세계가 공존하는 모델은 우리가 한 국가의 몸체와 정신을 구분할 때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정신은 동적인 문화에 속하고, 몸체는 정치·경제가 된다. 오늘날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국가 주체성을 세계화 및 미국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이 국가 주체성을 영속화 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과 물질적인 조건만을 생각하면 이러한 논의는 많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가장 반미주의적인 표현들은 동시에 가장 반자유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표현들이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반대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더 이상 만족스런 실험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시장경제가 한 국가의 몸체를 강화시켜 주는 가장 최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체성이 살아 있기를 원하는 국가에게 시장 경제는 일종의 근육강화운동과도 같다. 반대로 빈곤과 주체성이 결합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

될 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랍 이슬람 국가들에서 문화적 궁핍은 경제적 궁핍과 서로 동반관계에 있다.

따라서, 응집력 있는 전략은 국가의 몸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동시에 몸체를 발전시키고 정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치·경제 모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몸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때 시장 경제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된다.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시장 경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태도는 각국이 공통의 과제를 위해서 단결하는 것을 저해하며, 이들이 자유주의에 적대적이 되도록 만들 뿐이다. 아마도 이것이 유럽 학파와 북미 학파 및 이들의 전 세계적인 추종자들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 자유 시장의 지지자들은 너무나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주체성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지니는 힘을 과소평가한다. 따라서 엘리트들은 한 국가의 문화적 주체성과 단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도입하고 그 수단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시장 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가치는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의 각 영역에서 개인의 창조적인 욕구가 스스로 역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11. 다중 주체성이론(Multiple Identity Theory)

여기서 나는 국가 주체성과 세계화 혹은 미국중심적 세계 사이에 종종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단순한 용어가 복잡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만약 세계화가 미국중심적 세계를 숨기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 국가 주체성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도자나 지식인의 의지를 숨기는 것이 된다. 권력에 집착하는 이와 같은 의지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인간 존재를 가장 단순한 차원 즉, 한 보병의 차원으로 축소시켜 버리기 쉽다. 따라서, 인간 본성이 지닌 무한한 복잡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차원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설명되어야 한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시에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이성

적인 동시에 감성적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인간은 자기가 속한 문명과는 관계 없이 본질적으로 그가 딛고 있는 땅에 대한 유대, 혈연 관계, 가족, 조상, 그리고 국가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체성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또 다른 활발한 성향이 관찰된다. 태고로부터 인간은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인간은 정착하거나 이동하였다. 인간은 상호 모순적이며, 특히 다중적인 주체성을 가정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내가 감히 예언을 한다면, 나는 우리가 미래에는 다중적인 뿌리와 주체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 국가에 대한 충성이 세계에 대한 충성과 충돌해야만 하는가? 한 개인이 여러개의 동심원적 세계 속에 소속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 가설이 지니는 유일한 오류는 이것이 대중적 차원에서보다는 코스모폴리탄적 엘리트의 차원에서 더 잘 작동할 것 같다는 점이다. 多문화적 유랑(nomadic) 엘리트와 고립된 정착민이라는 새로운 계층분화가 현재의 사회적 계층분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유랑 엘리트가 정보와 경제를 통제하고 정착민이 정치적 권력을 통제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사회적 계층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해갈 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토착 국가는 유랑 엘리트가 경제적 의사 결정권을 장악하고, 반면에 정치 권력은 정착민이 행사하는 공간이다. 결국 미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유랑 대 토착 간의 충돌이 세계화 대 종족화(trivalization)라는 틀보다 더욱 정확한 인식틀이 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 대 국가 주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는 갈등은 유랑 대 토착이라는 하부 구조를 숨기고 있는 상부구조라고 여겨진다.

질문 당신은 어떻게 토론에 익숙해지게 되었는가?

답변 프랑스의 경우 토론은 유년기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서구 문명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발전과 그 방식을 살펴보면, 토론은 모두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경까지 서유럽은 아시아와 비슷했다. 서유럽은 단일 종교와 단일 권력하의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왕이 종교와 정치에서 최고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논쟁은 기독교가 분리됨으로써 종교제도 내부에서부터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아마도 토론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토론은 종교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신학교)으로 퍼져 나갔으며, 가족들과 그후에는 국가들을 분리시켰다. 우리는 토론의 역사가 오래 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이 지닌 특성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몇 개의 종교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점이 바로 한국이 이 지역내의 다른 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현재 프랑스는 두 자리 숫자의 실업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실업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답변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에게선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없애 버리는 아주 견고한 사회적 보호망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례를 따르지 말기를 바란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업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관리들이 누가 실업자들이고, 왜 실업 상태에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실업 문제에 대한 아무런 전략적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지 아이디어가 없다.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실업자들이 실업 상태에 처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특별보상을 요구하는 폭동마저 일어난다.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치를 썩기 보다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실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질문 한국은 주지하는 바처럼 수 십년 동안 분단상태에 있다. 세계화가 한국의 통일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좀 더 듣고 싶다.

답변 나는 북한을 두 번 방문하였는데, 우선 북한은 박물관으로 보존해야 할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내 뜻은 북한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체주의 신봉국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을 박물관으로 보존한다면 아마도 한국을 방문하는 새로운 관광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해서 충격적인 사실은 두 개의 한국인들 사이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체제는 다를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태도 및 그들과 방문객 사이의 교류 속에는 따뜻함과 환대가 있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주민들의 정신 깊숙한 곳에 미치는 영향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치체제가 전혀 새로운 국민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측면에서 통일이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둘째는 북한 주민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와 이웃, 외국인, 그리고 특히 남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북한 체제는 남한이 북한을 침공할 완벽한 기회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북한주민들을 세뇌시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 신뢰감을 심어주는 일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다. 도시는 에너지와 연료 부족 때문에 텅 비어 있으며, 주민들은 지방으로 폐지되어 이동하고 있었다. 공장은 에너지와 전력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군대 내의 상황 역시 좋지 않았다. 비행기나 탱크에 필요한 연료

가 없으므로 군사적인 위협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남한에게는 통일의 수용이 힘들지만 북한에게는 수용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소위 ‘연착륙’ (soft-landing) 이 해법이 된다고 보며, 이것은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본질은 변화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더 이상 ‘주체’ 사상을 믿지 않는다.

질문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변 정부는 민속 문화와 문화를 혼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외부 세계는 한국의 18세기 춤과 음악에 큰 관심이 없다. 이들은 훌륭하기는 하지만 서구의 청중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우리는 대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다. 한국에는 많은 훌륭한 작가와 화가, 조각가 및 예술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행운이라 하겠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이들 창작가의 능력, 자질, 그리고 창조성은 프랑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 예술가들은 한국이 결코 세계로 파견한 적이 없는 외교사절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발전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임무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몫이다. 현재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후원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투자가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 한국은 자기 증진에 있어서 스스로의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질문 특히 다가오는 21세기에 아시아와 EU가 함께 미국의 일원주의에 대응할 방법이 있겠는가?

답변 우선 일원주의와 미국적 제국주의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나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지는 않으며, 미국 제국주의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일원주의는 미국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본

다. 이는 만약 미국이 너무나도 강력해져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게 된다면,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옳은 결정만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점은 미국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둘째 일원주의는 미국을 속죄양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역시 좋지 않다. 만일 이 지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미국을 탓할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의 마지막 장에서 중국과 나머지 세계가 미국에 대항하여 연합하게 되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엉뚱한 아이디어의 이면에는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쌓여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일원주의는 미국 자체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자질에도 위협하다. 미국의 혁신능력 및 교육능력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다극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극 세계의 구성은 그리 쉽지가 않다. 유럽에서는 단일통화를 가진 유럽통합을 건설함으로써 이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일통화 체제하에 유럽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이자 기회임을 항상 강조하곤 하였다. 우리가 이 과제를 이룩해낼 수 없다면 우리는 쓸모 없는 세대가 되고 말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간에는 일정한 연계를 찾아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나는 장래에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다른 주변 국가들 간의 동맹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단일 통화 체제가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어려운 것으로 남겠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다극 세계라는 개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다극 세계는 우리의 집단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현재의 외환 위기로부터 한국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세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계 공동체가 IMF를 통해 항상 은행들을 구제해 왔다는 것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problem)문제는 이미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훌륭한 학생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지원하는데 대해 호의적인 논의들이 존재하며, 이것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 경제적 이해와 함께 군사적 이해도 갖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중의 하나인 동시에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한국의 군사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사이에는 구분이 없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결정적인 전략적 및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은 한국이 가진 자산 중의 하나이다. 둘째 한국에는 출범 초기의 ‘밀월’ 단계에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있다. 그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이다. 신임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국민들에게 현재 위기의 본질 및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할 수가 없을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비용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외국이나 한국 내부의 일부 소수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다. 외환 위기라는 실수는 한국 내외의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는 신임 대통령이 몇몇 사람들을 지목하여 이들에게 집단적인 실수의 책임을 떠넘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전환기라고 하겠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의 성취는 매우 인상적인 것이다. 한국은 세계시장의 요구와 기준에 더욱 부합한 상태에서 더욱 새로워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